

사랑하는 임용우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썩큼 통아이사익 ^{내일을 꿈꾸며}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지난 크리스마스 예배와 함께 이곳의 소식들을 기쁨으로 나눠드립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가도록 파송해주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늘 한결같이 동역해주시는 교회로 인해 늘 감사드리고 힘을 얻어 기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Christmas

WORSHIP | PARTY

12월 24일 주일 아침 일찍 교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일찍 문을 열어도 그 안에 더 일찍 와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몇 있는 것은 늘 미스터리입니다. 그렇게 먼저 아이들과 함께 음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당과 마당에는 장식과 예배준비가 한창이었고, 스킷드라마팀과 어린이메세지 준비도 점검되었습니다. 최근 주일에 정전이 되곤해서 기름을 사서 채워넣은 발전기도 한쪽에 두고, 스피커와 마이크, 키보드 등도 마당으로 옮겼습니다. 모두가 즐겁게 맘흘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십자가를 지시러 이땅에 오신 예수님, 모두가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그분의 오심을 노래하고, 그 안에 거하며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올 해의 복음 스킷드라마는 ^{Heng} 형제가 직접 대본을 쓴 ^{Heng's Life} 형의 인생이란 제목으로, 한 사람이 태어나 성장하며 학업과 결혼 양육 등의 삶의 무게가 더해갈 수록 예수님과 멀어지다가, 사랑하는 딸이 병들게되고 결국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입어 낫게 되며, 이것을 계기로 신앙의 방향을 끝내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에 선다는 내용입니다. 180 cm 가까운 장신인 그가 아기 연기를 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성장하며 하나씩 삶의 무게가 적힌 팻말을 목에 걸어갈때 보는 이들로 하여금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점점 삶의 무게에 스스로가 갇히다가 극적으로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장면은, 마치 바다에 빠졌다가 주님 손 잡고 구원받았던 베드로와도 같은 감흥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형은 왜 이런 스토리를 스스로 썼을까요. 저희는 스물 다섯 살인 형 형제의 삶의 약 사분의 일(6년)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를 처음 만난 것은 2012년 8월 캄보디아국립기술대학 안에 있던 세종학당 수업에서였습니다. 원래는 많은 학생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이 형제 한 명만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업을 취소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오히려 이 한 형제가 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책상에 마주하고 두시간동안 성실히 가르쳤습니다. 수업을 마치며 돌아갈 때 마침 가방 안에 있던 사과를 꺼내 피곤할 때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형은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하였으며, 5년을 한결같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전자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일본 회사 Minibea의 기술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믿어질 때 믿는다고 말하겠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단단합니다. 새해에는 예수님께 뿌리 박기를 기도합니다.



사진 1 : 태어나서 엄마의 품에서 자라는 형 (인생의 짐이 시작됨)

사진 2 : 대학생이 되어 공부하는 형 (친구는 영어가 답이라며 공부의 짐을 목에 걸어줌)

사진 3 : 한 자매를 만나 결혼을 준비하는 형 (여자친구는 집을 사달라며 돈의 짐을 걸어줌)

사진 4 : 아이가 생겨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형 (그의 인생은 이미 많은 짐으로 무거워져있음)

사진 5 : 병든 딸이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비로서 주께 돌아오는 형 (그의 짐이 다 놓여짐)



2015년 8월 15일
강의실에 혼자 있던 형

씨로앗 Sirath



스킷드라마에서 행의 여자친구로 나왔던 씨로앗 자매는 작년 10월에 처음 저희 교회에 나왔습니다. 솔직히 처음 그를 만났을때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고 머지않아 떠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속의 마음을 나누지 않고, 물음에 답하기보다는 원하는 것을 먼저 묻고, 다른 이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으며, 함께 하는 섬김에도 한걸음 뒤로 하는 등 소극적이고 자신을 보호하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달 정도 지나며 씨로앗 자매 안에는 영혼에 대한 특별한 눈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잘 섞이지 못하는 것은 그의 서툰 (혹은 잘 알지 못해온) 성격이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은영 선교사가 이 자매를 품고 일대일 말씀 양육에 들어갔습니다. 한 시간의 만남을 위해 여러날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교재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혹 이 자매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어 교회를 떠난다해도 그만큼의 영적 성장을 돕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씨로앗 자매는 여전히 말씀안에 영적 성장을 쉬지 않고 있으며, 소그룹과 교회에도 일원으로 편안해졌습니다. 저희는 2018년 그에게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며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을 시작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삐싸이 Pisey

2010년 처음 캄보디아에 발을 내딛은 후 언어, 문화, 환경 모든 것이 새롭고 벽으로 느껴졌던 첫 6개월 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나 제자양육을 했던 6명 중 한 형제가 삐싸이입니다. 그후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며 대학 졸업후 프놈펜의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교제하던 자매와 약혼을 하였고 이번 크리스마스 예배에 함께 왔습니다. 이전의 피터형제와 같이 삐싸이 형제도 캄보디아 종교와 문화 특성상 두 사람이 모두 믿음에 온전히 서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캄보디아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출생, 결혼, 장례와 같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은 모두 승려와 함께 하며, 특히 모계사회인 이곳 문화에서는 결혼후 보통 남자가 여자 집으로 들어가 살면서 종교와 생활문화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교회 안에 좋은 크리스찬 부부의 모델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2018년 1월 교회 도서로 크리스찬가정에 대한 것으로 첫 주에 나눠주게 됩니다.



썸은 Sam O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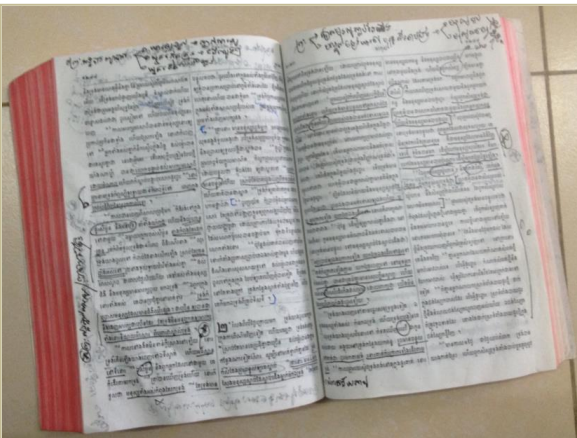
썸은 형제는 캄보디아에서 쌀로 유명한 바탐방에서 왔습니다. 결혼하였고 아내는 현재 한국에 노동자로 있어, 썸은이 프놈펜에서 일하며 3살된 딸 레마^{Rhema}를 돌보고 있습니다. 정식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바탐방에서 어린이 사역자로 있었으며, 기독교치원을 운영하는 것이 꿈인 스물 여덟살 아버지입니다. 길에서 저희 교회의 주일학교 간판을 보고 교회에 나온지 약 3개월이 되었습니다.

타지역에서 사역자로 있었기에, 먼저 그가 예배안에 정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 예배에서 어린이 메세지를 부탁했는데 편안하면서도 아이들을 주목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2018년에는 지금의 주일학교 교사인 다엔자매와 쓰러이비 자매와 더불어 썸은이 함께 팀으로 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주셨습니다. 기쁘게 헌신하는 한 명으로 한 사역은 시작됨을 압니다.



룻 Rith

스킷드라마에서 예수님 역할을 했던 룻 형제입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캄보디아 왕립법대를 졸업하고



베트남으로 유학을 가 하노이국립대학에서 법학석사를 마치고 돌아와, 현재 캄보디아 법무부에서 일하고 있는 27살 청년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 꿈을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고, 또한 심성이 순하고 깨끗한 귀한 형제입니다. 아직 믿음이 어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최근 주일

아침 마가복음반이 시작되었는데, 첫 날 그가 스스로 연구하고 온 마가복음 1-2 장입니다. 그의 성경책은 저희 부부에게 지난 7년의 수고를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2018년 그가 말씀 위에 단단히 서가는 것을 꿈꿉니다. 그리고 교회안의 다른 지체를 세우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며, 나아가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일꾼으로 삼으시길 기도드립니다.

소원나무와 한 소원 Wish Tree & 1 wish

어린이도 어른도 크리스마스 트리에 각자 2018 년의 기도제목과 소원을 적어 붙이고, 새해의 말씀 구절을 하나씩 뽑았습니다. 기도제목들은 대개 건강과 학업, 직장과 가족 등의 생활에 관한 것들과, 신앙성장과



가족의 구원 등의 영적인 부분들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중에 한 집에서 오는 네 아이가 있습니다. 그 중 첫째인 니따(사진 가운데)가 적은 것을 보니, ‘저는 주일학교가 좋아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좋아요...’ 10 살의 작은 캄보디아 여자 아이의 마음이 이곳에서 행복하구나 하는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선교사인 저희들의 소원은 무엇일까 생각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쓰임받는 것이 감사하고, 또 허락하신 시간까지 맡겨주신 영혼들앞에 사랑과 진실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바랍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 지금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지금은 그저 상상만 해 봅니다.

지금은 ‘영혼을 깨우고 ^{엡 5:14},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많이 남기는 것’ ^{요일 2:17}, 이것이 저희의 한 소원입니다.

캄보디아국립기술대학 National Polytechnic Institute of Cambodia, NPIC

지난 11 월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속해있는 캄보디아국립기술대학과 강의를 섬기는 신학교와 무슬림대학까지 저희 부부는 이번학기 200 명정도의 학생을 만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매번 부르며 얼굴을 익혀가고, 교실밖과 SNS 를 통해 계속 연락하고 관계를 쌓아갑니다. 그렇게 한 학기를 마치게 되는 때면, 기도를 하고 개인 간증을 겸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저희에게 맡겨주신 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또 만남을 주십니다. 2018 년 2 월이나 3 월 정도 지금의 교회가 아닌 또 하나의 공간(푼꼭 지역)을 쓸 수 있는 환경이 허락되면 토요일이나 주일 공동체 모임을 하나 더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6 년전 소그룹 모임이 지금의 제자교회가 된 것처럼 다시 꿈꾸고 기도합니다.

* 2018 년 비전

**ROOTED
& built up**
2018 Eternal Joy JEJA Church

가정 family

온유와 주언이도 건강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온유는 1월 4일 틴에이저^{만 13세} 청소년이 됩니다. 저희 부부도 곧 다가올 변화(?)를 대비해야겠습니다. 저희의 바람은 온유 주언이가 선교지에서 깨끗하고 총명한 아이로 자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열악한 것은 가시적인 것일 뿐, 때가 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계신 이의 부르심을 따라 저 넓은 세상으로, 각자의 사명터로 나아갈 것입니다.

지난 11월 초 갑자기 저희가 사는 집의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빗 물이 지붕 바닥 안으로 들어와 고여 약한 곳이 일순간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또 안방의 벽이 어린이 허리 높이까지 젖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옆의 화장실의 벽 속의 약한 수도관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집안의 물길들을 잡기위해 저희는 한달이상 생활하는 가운데 공사를 했습니다. 참으로 불편하고 불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이상하게도 마음에 회개가 나왔습니다. 지금의 나의 영적 모습은 어떠한가, 섬기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은 어떠한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연약한 중에 붙드시는 것은 그분의 은혜란 것을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 저희 부부가 이곳 캄보디아에서 지금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이 서신을 읽으시는 한 분 한 분께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도제목:

1.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선교사 되고, 학교와 교회에서 맡겨주신 이들을 잘 섬기길
2. 2018년 제자교회가 예수께 뿌리내리며, 찬양인도자와 팀리더십을 새롭게 세우시며, 두번째 예배터를 주시길
3. 정지웅 선교사 아버지가 회복과 구원을 위해
4. 선교사 거주 월세(월 400\$)나 자녀 학비 보조(월 500\$)의 2018년 약정 후원자(3, 6개월, 1년)를 주시길

2017년 12월 30일

정지웅/은영, 온유, 주언 선교사 가정 올림

